

韓國 音樂教育 제도와 大學 教科課程

尹 相 烈

(群山大 音樂科)

1. 序 論

解放 이후 우리의 教育은 많은 變化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특히 音樂教育에 있어서는 學制나 教育課程 면에서 큰 發展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制度나 課程이라 하여도 完璧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동안 經濟的인 면이나 文化的인 면에서 양적·질적 성장과 변화가 엄청나게 커서 우리의 생활을 바꾸어 놓았다.

그러므로 변화된 사회 현상에 맞는 制度의 改善이나 補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지금 우리는 2000 年代의 先進化 時代를 指向하며, 비전 있는 教育의 方向 제시와 現制度 그리고 現場教育의 유기적인 관계를 分析 研究하여 새로운 問題點을 發見하고 制度와 課程의 妥當性 및 效率性을 深刻하게 診斷할 때이다. 音樂教育이 단순히 노래 부르기가 아니므로 音樂家를 만드는 문제, 音樂教育者를 齊成하는 문제 그리고 人間教育으로서의 全人教育의 문제 등 실제로 그 重要性은 至大하다고 본다.

音樂藝術家를 만드는 音樂大學의 現行 制度는 音樂科 그리고 音樂指導者, 즉 教育者를 齊成하는 音樂教育科로 나뉘어 있다. 精神文化教育이

곧 知的·情緒的·道徳的으로 人間을 올바르게 成長시킬 수 있는 基本이 된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理論이 아니다. 그래서 先進國에서는 이의 중요성을 再認識하여 教育制度, 教育課程 및 教育內容에 관한 持續的인 研究와 이를 바탕으로 한 바람직한 改革을 적절히 施行하여 教育效果를 極大化하고 있다.

우수한 技能을 가진 藝術家와 尊敬 받는 스승으로서의 音樂教育者를 齊成하려면 大學의 役割이 가장 중요하다. 이는 知性과 學問의 搖籃인 大學이 그와 같은 指導者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간 우리나라의 音樂教育은 藝術教育으로서의 제 위치를 찾지 못하고 入試 위주의 教育風土에 밀려 여러 가지 問題點이 노출되고 있다. 21 세기의 先進化 時代를 맞아 藝術教育으로서의 音樂education을 재조명하고 大學의 使命과 目的을 보다 效果的으로 達成할 시기가 되었다. 우리가 어느 누구의 學制나 教科課程을 模倣하기보다 각 大學과 學科 및 地域의 特性을 살려 多樣性의 長點과 모든 다른 體制들의 比較 研究를 통하여 大學의 發展의 教育政策 및 올바른 藝術教育의 비전을 찾아야 한다. 이에 本稿에서는 現行 우리의 音樂教育 實態를 事例 研究 및 外國과의 比較 研究를 통하여 정확히 診斷하고 把握

하여 우리 音樂教育의 바람직한 方向을 捷索해 보고자 한다.

2. 研究 内容 및 問題

本稿의 目的은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内容과 問題를 다루기로 한다.

- ① 우리나라의 音樂教育制度 및 學制
- ② 現行 각 大學의 音樂教育機關 分類
- ③ 우리나라 大學의 音樂科 및 音樂教育科 教科課程 學點 比較研究
- ④ 美國有名 音大와의 比較研究

3. 音樂教育制度 및 學制

1) 현행 한국의 음악교육 기관과 학제

• 예술 중·고등학교

現行 正規 中·高等學校 課程에서 音樂을 專門으로 가르치는 音樂學校이며, 수업 연한은 각 3년이다.

• 현행 段修 教科目

a. 中學校

視唱·聽音, 演奏, 合奏, 專攻 實技 등

b. 高等學校

音樂鑑賞, 音樂理論, 視唱·聽音, 向上音樂, 合唱合奏, 專攻 實技, 音樂史 등

• 音樂學校(中·高) 分布

위의 〈표 1〉에서 보면 現行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과정의 음악 학교는 6개로 나타나 있다. 그 중 중학교를 보면 서울에만 2개교가 있을 뿐

〈표 1〉 우리나라 중·고 음악 학교 수

구 분	서 울	지 방	소 계	총 계
중 학 교	2	0	2	•
고등학교	3	1	4	6

지방은 1개도 없는 실정이다. 이는 지방 문화의 서울 집중 현상이 지방 문화 발전이란 측면에서 문제가 끊거나 아니라 전문 예술교육의 특수성을 생각할 때 지방에도 예술중학 개설이 시급함을 말하고 있다. 또한 현행 교육과정을 볼 때 중학교의 경우 實技와 理論이 대체로 균형 있게 짜여져 있으나 聲樂과 器樂의 각 專攻이 13개 분야로 나뉘어져 있다. 그러나 어느 분야보다도 초기 교육이 오망되는 創作分野인 作曲 專攻이 소홀히 취급되고 있음을 再考의 여지가 있다. 또한 高等學校를 볼 때 共通必修 84 단위, 선택 과목 단위 38 단위로 되어 있고, 專攻 實技는 각 17개 분야(피아노, 作曲, 聲樂, vi, vla, c, K.B, Ha, cl, ob, Fl, Bsn, Tp, Tb, Hrn, Xy, 가야금)이다. 專攻 實技는 30 단위로 총 82개 音樂科目 중 36.5%로 가장 많은 比重을 두고 있어 實技를 강화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專門音樂家 및 指導者를 育成한다는 면에서는 더욱 專攻分野의 理論과 實技 시간을 넓혀줌으로써 全人的 藝術家를誕生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2) 現行 각 大學의 音樂教育機關 分類

• 音樂大學

音樂大學은 綜合大學에 속해 있는 單科大學으

〈표 2〉 전국 각 大學의 音樂教育機關 분포

분류 \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강원	경남	경북	제주	계	평균
音 樂 大 學	8		2							1		11	19.3
音 樂 學 部(科) (藝術大學)	2	5		1		1				1		10	17.5
音 樂 科	2		2			2	1	1	2	1		9	15.8
音 樂 教 育 科	5	1	2	4	2	2	3	2	2	1	1	24	42.2
宗 教 音 樂 科	3											3	5.2
計	20	6	4	5	2	5	4	3	4	4		57	
平 均 (%)	35	10.5	7.0	8.7	3.5	8.7	7.0	5.2	7.0	7.0	1.7	100	%

로 음악을 전문으로 교육하는 機關 중 가장 규모가 크고 聲樂, 器樂, 管絃樂, 作曲, 理論, 指揮, 國樂科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 音樂學部

藝術大學內에 속해 있는 음악과를 말하며, 음악대학과 같이 종합대학에 속해 있으며 몇 개의 專攻 學科를 두고 있다.

• 音樂科(學科)

일반적으로 單科大學이나 文理科大學에 소속해 있으며 專攻領域은 음악대학의 축소형으로 운영되는 것이 보통이다. 大學에 따라 音樂科 또는 音樂學科로 칭한다.

• 音樂教育科

師範大學에 속해 있으며 中等學校 音樂教師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音樂科와 같이 專攻別로 나누고 있다.

• 宗教音樂科

일반적으로 神學大學이나 몇몇 기독교 財團의 音樂大學에 속해 있으며 Organ, piano, 聲樂, 作曲, 指揮 등의 전공별 분류를 하고 있다.

앞의 〈표 2〉의 분류 통계를 살펴 보면, 첫째로 57개의 음악교육 기관 중 20개의 기관이 서울에設置되어 있는데 이는 전체 기관 중 35%에 해당된다. 특히 專門的 學術研究가 주목적인 音樂大學級 기관이 서울에 偏重되어 있어 地方 학생의 서울 집중 현상이 加重되고 있다. 둘째로 音樂教師를 양성하는 것이 主目的인 音樂教育科는 24개교로 전체의 42.2%가 되는 반면, 音樂科는 9개교로 15.8%의 대조를 보이고 있어 地域의 特性에 맞는 音樂大學의 設立이 바람직한 실정이

다. 세째로 全國 3개의 直轄市 중 인천직할시 그리고 京畿道 지역의 中央大 안성 캠퍼스를 제외한 어느 곳의 大學에도 音樂科 내지 音樂教育科를 설치하지 않고 있음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4. 우리나라 및 外國 大學의 教育課程 比較 分析

1) 전국 音樂科, 音樂教育科 교육과정 분석

音樂科: 江陵大, 群山大, 釜山大, 昌原大, 湖西大, 聖心女大

音樂教育科: 關東大, 三育大, 慶南大, 檀國大, 全北大, 清州師大 등

전국 12개 大學別 교과과정 配當 學點을 비교 분석하고 教科目의 現況을 研究하였다. 音樂이 단순히 人間에게 주는 즐거움을 提供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道德的・敎育的・精神文化와 社會的 共同 모랄의 향상 수단으로서의 機能도 다해야 한다.¹⁾ 그러므로 다른 藝術과 달리 두뇌의 개입을 거치지 않고 直感的 能力を 가지고 情緒的 酝化와 精神的 安靜에 초력하여 調和된 人格 形成의 터전을 마련해야 한다.

音樂敎育은 이런 意味에서 대단히 중요함을 일깨워 준다. 특히 우리나라 大學에서의 音樂敎育은 한편으로는 音樂敎育者를 鑿成하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한쪽은 音樂家를 키우기 위한 것이다. 音樂大學과 單大 音樂科에서 30%의 교직 과정 이수자에게 中等學校 敎師資格證을 주고 있으나 주된 敎育이 音樂家를 양성하기 위한 코

〈표 3〉 전국 각 大學別 敎科課程의 比較

科別 學校名 敎科目名	音 樂 科							音 樂 敎 育 科						
	江 陵 大	群 山 大	聖 心 女 大	釜 山 大	昌 原 大	湖 西 大	平 均	關 東 大	三 育 大	慶 南 大	檀 國 大	全 北 大	清 州 師 大	平 均
전 공 실 기	24	16	16	24	8	16	17.3	8	18	12	6	16	10	11.6
부전공실기(제2실기)		4		6	4		2.3		14	4		8	4	5.0
제 3 실 기		1					0.1							0
시 창 · 청 음	4	6		10	4	8	4.6	8	8	4	4	8	2	5.7
합 창 · 합 주	8	16	4	14	8	4	9.0	4	16	8	4	13	8	8.8

1) May Weber 著, *Die Rationalen und Soziologischen Grundlagen der Music*, p. 212.

科別 學校名 教科目名	音 樂 科							音 樂 教 育 科						
	江 陵 大	群 山 大	聖 心 女 大	釜 山 大	昌 原 大	湖 西 大	平 均	關 東 大	三 育 大	慶 南 大	檀 國 大	全 北 大	清 州 師 大	平 均
	2	4	2	4	2	4	3.0	4	2	4	4	4	4	3.0
전반화성학	2	4	2	4	2	4	3.0	4	2	4	2	2	4	4.0
화성법(초·고)	2	4	5	8	4	4	4.5	8	4	4	2	2	4	1.0
음악이론·개론	2			6	4		2.0			2				
대위법(카논·후가)	2	4	2	4	4	4	3.3		2	4	2	2	4	2.3
지휘법	4	2	2	4	2	4	3.0	4	4	4	3	1	2	3.0
작곡법·편곡법	4	1	4	4	8		3.5	4	2	8	2	4	4	4.0
관현악법	4	2	3	4	2		2.5	2	2		2	1		1.2
클래식피아노		1	4		2		1.7	8					2	1.3
악기론	1	2	2		2		1.7	4	2	2	2	4	2	2.0
음악분석	1	2		4	2	4	2.16			4	2	4	2	2.0
고등악	4						0.7						0	
반주	1	1	2	2	2		1.3	4		2	2	2	2	2.0
현대화성학					2		0.3						0	
가창법	2	2		2	2		1.3	6		2		4	2	2.3
대악	4	2	3	4	2		2.5		4		1			0.8
음악분석	4	1	2	4	2	4	2.8		2		6	3	2	2.2
음악학	3	4		8	6	4	4.2	4	4	4	2	8	4	4.3
음악감상	4	1		2	2	4	2.2		4	1	1	2	1.3	
악기감상	2		2	2	4		1.7		4		4		2	1.6
악기통론	4		1				0.8							0.6
음악미학	4	2	3	2	2		2.2				2	2		0.6
총보	4	1		2			0.5							
국악개론(사·실기)	4	3	3	4	4	2	3.3	4	2	4	3	4	4	3.5
오페라클라스	1	1		4	2		1.3		4				2	0.6
어학/Diction	1	2		6	2	4	2.5		4	6				2.0
원서강독	4					4	1.3						0	
Opera				2			0.3							0
이·독·불가곡연구			2		3		0.8							0
한국예술가곡					2		0.3							0
관악합주	1		2	1			0.6							0
현악합주	1		2	1			0.6							0
피아노양상불	1						0.1							0
양상불		1		2	2		0.8						2	0.3
음계론			1				0.1							0
종교음악			2				0.3		2					0.3
연주·연주법	4	6	1	6	4		3.5		4	6	10		4	4.0
음악교실						2			2	3		3		0.5
교제연구지도법							0.3		2	3				0.8
각과지도실제							0		3	2	2			1.2
음악과교육론				2	4		1.0		2					0
졸업연구(논문)				3	3	1.0		2		2				0.6
학점계	103	100	68	150	94	85		72	118	87	67	92	76	

* 상기 대학 1986년도 학사 전람 및 교육과정 참고.

오스로 되어 있다. 또한 音樂教育科는 대부분 師範大學에 속해 있어 音樂教師養成을 주된 目的으로 한다. 그러므로 장차 國家 社會가 기대하는 有能한 人材의 배출을 생각할 때, 각 大學의 音樂科와 音樂教育科의 教科課程에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은 주목할 절이다.

〈표 3〉, 〈표 4〉에서 보면 각 大學 教科課程配當 學點은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총 46 개 교과목의 다양한 講座를 開設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音樂教育을 藝術教育으로서 專攻實技分野, 基本共通 實技分野, 創作分野, 一般理論分野, 國樂理論 및 概論分野, 音樂教育分野, 기타 分野 등으로 나누어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표출되고 있다.

첫째, 音樂科, 音樂education科 공히 專攻 實技에 가장 많은 學點을 配當하고 있는데 音樂科 6 개교 중 한 학교가 평균치인 17.3에 훨씬 못 미치는 學點配定을 하고 있어 주목된다.

둘째, 音樂education科는 音樂教師 양성이 주된 目的인 바 기초 이론 및 실기와 일반 이론, 국악,

교육학 등 教師로서의 全人的인 實技 理論의 광범위한 채득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教育課程 자체도 音樂科와 音樂education科가 다르게 편성되어 마땅하다. 그러나 音大나 音樂科, 音樂education科가 大同小異한 教育課程으로 명칭만 다를 뿐 거의 같게 運營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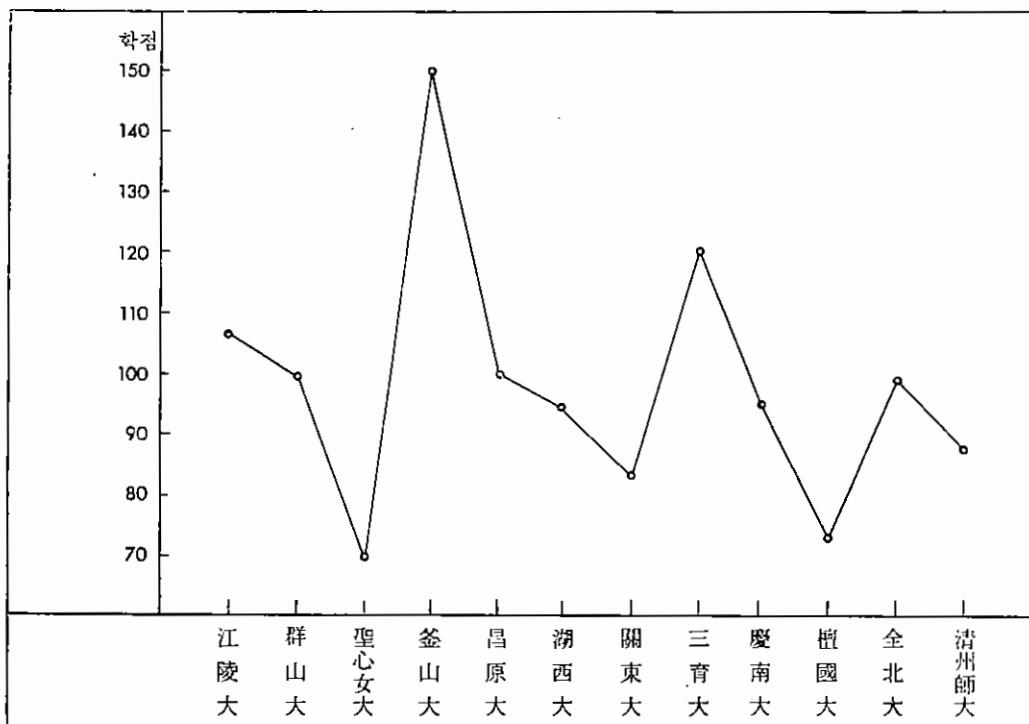
세째, 類似科目의 명칭이 각기 다르므로 인해서 集中的인 指導가 어렵고 學生의 專門的研究에 混亂이 올 수도 있다. 가능한 統一化하여 理論과 實技 科目的 기능과 역할을 세밀히 연구하여 과감한 통·폐합이 요망된다.

네째, 副專攻 實技는 音樂education科에 더욱 필요 한 教科目으로 생각되나 33%에 해당하는 5 개교가 전혀 實施하지 않고 있다.

다섯째, 合唱, 合奏는 최고 16 학점에서 최저 4 학점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音樂科에 開設되어 있는 教科目 중 7 개 과목만이 音樂education科에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여섯째, 音樂科 專攻科目의 총 이수 학점은 최고 103 학점에서 최저 68 학점의 차이를 보이

〈표 4〉 각 大學別 專攻科目 졸업 이수 학점 비교표



고 있으며 音樂教育科의 최고 학점은 118 학점에서 최저 67 학점으로 나타나 있다. 이는 당연히 音樂科의 성질상 專攻 實技 학점의 비중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일곱째, 각 大學의 커리큘럼이 거의 類似하여 特性이 없고 創一의인 학점 이수에 그치도록 짜여 있다.

여덟째, 제 3 실기는 1 개교만 개설하고 있는데 이는 音樂教育의 다양한 기능의 함양을 생각할 때 계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教育課程이 획일적으로 짜여질 수는 없는 것이다. 이는 大學이나 地域 特性과 實情에 따라 특수성을 지닐 수 있다. 그러나 각 大學의 教育課程을 비교해 볼 때 科目的 선·후수 조정 및 學點 配當에서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동소이함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유능한 藝術家와 우수한 教育者를 양성해야 하는 大學의 專門教育으로서 각 大學의 設立 目的과 學科의 성격에 맞는 커리큘럼으로 특성을 살려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전국 音樂大學 교육과정 분석

慶熙大, 서울大, 淑明女大, 延世大, 嶺南大, 梨花女大, 中央大, 漢陽大, 曉星女大 등 전국 9개 大學의 전체 학점을 教科課程의 領域別 類型으로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5〉와 같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첫째, 專攻 實技는 16.3%로 총 48 개 學科目 중에서 比較할 때 대단히 높은 비율로 각 大學이 전공 실기 위주의 教育課程 運營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大學이 專門人的 養成

이란 점에서 專攻 實技 學點이 平均置에도 못 미친 學校는 專攻 實技 교육의 강화가 요망된다.

둘째, 音大에서 副專攻 實技는 대단히 중요한 教科인데 1.4%로 매우 적은 비율이다. 특히 6 개 大學은 전혀 開設하고 있지 않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세째, 전체의 영역 중 34%를 차지하고 있는 基本技能實技 理論 領域은 훈련한 基礎技能理論을 다지는 면에서 적절한 배치로 각 大學이 대체로 중요시하고 있다.

네째, 11.8%의 創作理論 영역은 音樂專門家를 養成하기에 다소 부족한 분포이다. 물론 理論領域이므로 音樂科의 基本理論도 포함된다. 그러나 더욱 높은 비율로 배정함이 철저한 理論의 무장이란 면에서 바람직하다. 平均置에 훈련 못 미치는 大學이 3 개 대학이었음은 研究對象이다.

다섯째, 30%의 教育課程 履修者에게만 해당되는 科目이 아니라 音樂을 전공한 專門人이면 누구나 音樂education理論은 필요한 과목이다. 그런데 2.2%의 저조한 비율이고, 3 개 大學은 전혀 開設하지 않고 있음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여섯째, 國樂概論이나 理論 및 國樂史는 民族音樂을 올바로 알고 理解하는 데 절대 필요한 과목이다. 4.4%에 훈련 못 미치는 學校가 있고 전혀 開設하지 않은 大學도 있음은 民族音樂의暢達 계승이란 점에서 제검토할 사항이다.

일곱째, 기타 教科目 領域은 外國語 딕션, 오페라 클라스, 원서 강독, 演奏, 세미나, 총보독법, 音樂心理學, 音樂學, 音響學, 演技, 律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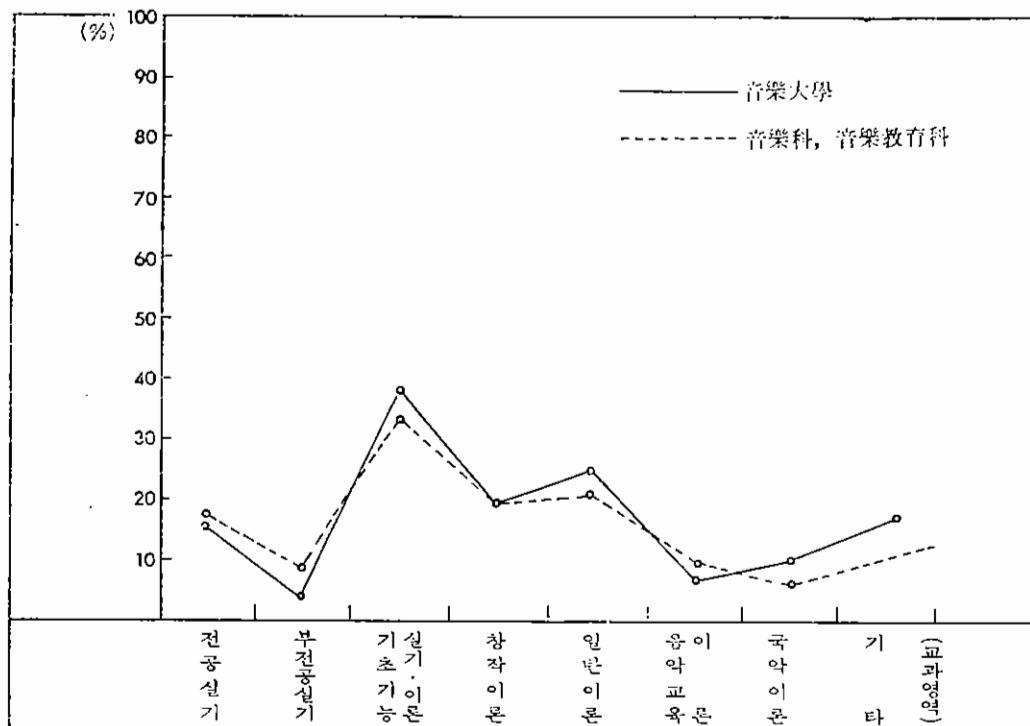
〈표 5〉 전국 音樂大學 교과목 학점 비교표

(단위 : %)

學校名 教科目 領域分類	慶熙大	서울大	淑明女大	延世大	嶺南大	梨花大	中央大	漢陽大	曉星女大	平均
專攻 實技	13.8	14.5	16	17.5	18.1	17.8	13.5	15.0	21.0	16.3
副專攻 實技	5.2	0	0		4.5	0		2.5	0	1.4
基本技能實技理論	24.1	32.6	44	30.5	47.7	31.1	33.8	38.7	24.2	34.0
創作理論	13.8	9.0	16	18.5	6.8	22.2	5.0	2.5	12.6	11.8
一般理論	12.0	29.4	12	20.3	6.8	17.8	28.8	15.0	9.4	16.8
音樂教育理論	3.4	0	4	4.0	2.2	4.4	0	2.5	0	2.2
國樂理論	6.8	4.2	4	4.0	7.9	0	1.7	5.0	6.3	4.4
其他科目領域	20.6	10.3	4	5.2	5.6	6.7	16.9	18.7	26.3	12.7

* 상기 대학 1986년도 학사 편람 및 교육과정 참고.

〈표 6〉 教科目 比較 圖表



등의 영역으로 12.7%로 나타나 있다。大學에 따라 각기 特性 있는 教育을 위해 더욱 開發研究가 필요한 교과목 영역이다。우리나라 音樂大學과 音樂科는 동일한 커리큘럼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특히 師範大學에 있는 音樂教育科는 훌륭한 教師로 양성한다는 目的에 부합되도록 教育課程의 劃期的인 改編이 요망된다。앞의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音樂大學이나 單科大學內의 音樂科, 師範大學內의 音樂education科가 거의 같은 커리큘럼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하루 속히 본래의 設立 目的에 맞게 개편되어야 한다。

3) 美國 音樂大學 교육과정 비교 분석

美國의 音樂教育制度는 유럽의 音樂院制度와 같은 機能도 있으며, 一般大學이나 綜合大學 속의 音樂大學과 같은 기능도 함께 수용하는 제도로 이루어져 있다。여기서는 美國의 수많은 音樂學校 중 특별히 學校의 特性이 두드러진 9개교를 선정하였다。뒤의 〈표 7〉에 나타난 狀況을

보면, 각 大學이 專攻 實技에 가장 많은 學點의比重을 두고 있음을 볼 수 있다。특히 Curtis音大에선 48 학점으로 11.1%의 낮은 비중을 두고 있다。한편 Wisconsin-Milwaukee音大는 專攻 實技 학점을 전혀 두지 않고 있는데, 이는 演奏家의 齊成보다는 音樂教育者의 양성에 목표를 두어 一般教養 및 音樂의 전반적 理論 實技에 광범한 지식을 습득케 하기 위함으로 教育課程上의 特性 있는 教育의 實像을 斷面으로 볼 수 있다。

각 大學의 教科課程이 개개인의 개성을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짜여져 있음을 볼 수 있다。우리나라의 教科課程과 비교할 때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개인의 능력과 素質을 최대한 伸張, 발전시킬 수 있도록 合理的이고 能率的으로 짜여져 있다。美國의 大學에선 유럽에서와 같이 Diploma를 취득하려면 자기가 취득하려는 과목만 畢修하면 된다。한편 學位(學士, 碩士, 博士)를 받으려면 Diploma를 취득한 과목을 除外한 나머지 科目을 자신이 반고자 하는 學位의 教

〈표 7〉 美國 9 개 音樂大學 專攻別 교과과정 및 학점 분포도

구 분	音 樂 大 學 (學士課程)																				
	Columbia (BA)		Curtis (BM)		Indiana (BM)		Julliard (BA)		Mannes (BM)		Peabody (BM)		Queens								
教科課程	I / P C / V	I / P C / V	I	P	C / T	V	I	P	C	V	I	P	C / T	V	I	P	C	V	BA	Mus B I / V	BA-MA
專 攻		48	46	46	24/15	22	40	40	40	40	32	32	32	32	28	28	38	28	24		
理 論	20	38	6	6	12/21	6	8	8	26	16	41	43	43	41	32	32	40	32	30	8	
唱 哨 · 聽 音																					
音 樂 構 成																					
音 樂 史	12	4	8	8	8	8	18	18	18	18	8	8	8	8	8	8	8	9			
文 獻	6	4	13	13	20/13	19	28	40	28	36	3				2	12		12	3	1	
合 奏 · 演 奏			6	2	0/1	4	24	12	8	8	32	8	4/6	6	4	4	4	4	6	Music	
Piano 실습		R	8	4	24/10	8	12	8	12	12	4	6	10/6	4	4	2	4	4	3	School	
語 読 / Diction							18	15					0/12	26	12	12	12	24/8	6/12		
論 文																					
選 擇	16		12	11	12/6	15	10	8	12	6	46	/8	10	8	8	8	4	(52)	(62/56)		
教 养	30	30	17	17	17/23	17	15	15	15	15	22	22	22	22	24	24	24	6	34	18	
自由 選 擇							4	13	3/15	6											
總 學 累 計	124		120	120	120	120	155	139	159	167	139	126	126	146	122	130	132	130	128	128	

※ I : 器樂, P : 피아노, C : 作曲, V : 韶樂

科課程에서 畢修하면 받을 수 있다. 이는 유럽에선 각 科目的 畢修에 따라서 주는 Diploma 課程과 學位를 받으려면 総合大學에 다시 들어가야 하는 制度와는 다른 것이다. 美國의 教育制度는 Diploma 課程과 學位課程을 동시에 이수할 수 있는 점이 유럽의 音樂院과 다르다.

美國의 音樂學校는 두 제도를 동시에 갖춘 総合的인 教育機關으로 運營되고 있다. 우리나라 音樂教育制度는 音樂院制度가 없고 音大課程만 있어 Diploma 課程은 없고 學士(B.A.)와 積士(M.A.), 그리고 일부 大學에서 D.M.A. (Doctor of Musical Arts) 學位를 開設하고 있으나 Ph.D. 課程은 없는 실정이다. 教育課程은 현행 우리나라의 교육과정과 같이 專攻實技, 專攻必須, 專攻選擇, 教養科目으로 구성되었다. 學士課程을 보면 專攻과 教養科目이 각각 60%이고 音樂理論 과목이 20%, 그리고 그 밖의 과목이 20%를 나타내고 있다. 졸업 이수 학점을 보면 우리나라는 총 140 학점으로 어느 大學이나 別一의 으로 둘어 놓고 있으나 美國의 5 개 大學을 보면 120~167 학점까지 學校의 실정에 따라 융통

성 있게 운영되고 있다.

맨 뒤의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教養科目의 비중이 平均 40.8 학점인데, 24.6 학점인 美國에 비하여 거의 2 배에 가까운 실정이다. 이로 인하여 專攻實技나 專攻選擇의 학점 배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부 大學에선 전공 과목의 이수 시간을 더욱 확보하기 위하여 專攻實技 학점을 최소한 줄이고 無學點 必須科目을 선정하여 학점은 없으나 이수하지 않으면 學位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專攻實技의 경우 우리나라는 平均 16 학점인데, 美國의 경우 37.6 학점으로 2 배 이상을 배정하고 있어 大學에서의 專門教育이 專攻實技에 치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音樂大學 教育課程이 人文·社會系列과 같이 취급되어 만들어진 맹점으로 하루 속히 音樂教育의 特殊性을 감안하여 실정에 맞게 改定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美國의 Julliard 音大의 경우 音樂史 教科目에 18 학점이란 높은 비중을 두고 있음은 특기할 사항이다. 教養科目(共通)과 專攻實技에 우리나라의 音大와 美國의 大學이 많은 차이를 보이고

〈표 7-1〉 美國 9개 音樂大學 專攻別 교과과정 및 학점 분포도

구 분	교 과 과 정	音 樂 大 學 (學士課程)						
		Northwestern			Wisconsin-Mil			
	I	P	V	I	I/V	V		
전공 공동 및 전공필수 교과목	전 공 실 기 이 시 창 · 청 음 음 악 사 예 비 과 정 운 악 구 성 음 악 문 현 그 룹 피 아 노 피 아 노 · 을 제 지 치 관 현 기 악 테 크 {피 아 노 · 성 [기] 악 · 성 악}	18 9 9 9 3 9 4/5 9 6 3 1/5 3 9 6 3 9 9 9 9 3	18 9 9 9 3 9 — 9 3 3 — — 6 3 9 2 2 8 4 6 2 2 2 4	18 9 9 9 3 9 1 4 11 1 — — 6 3 2 8 2 2 2 2	10 10 6 6 — 4 12 — 12 11 — — — — — — — — —	10 10 6 6 — 4 12 — 12 11 — — — — — — — — —	I = 器樂 P = 피아노 U = 聲樂	
	합 창 양 상 불 양 상 불	— 3	— —	— —	— —	— —	— —	—
	건 반 화 성 악	—	9	—	6	—	6	—
	중 등 음 악 교 육	—	6	6	—	—	—	—
	국 민 음 악 교 육	—	3	3	—	—	—	—
	피 아 노 실 습	—	9	2	—	—	8	—
	팬	—	—	2	—	4	2	—
	기 초 음 악	—	—	8	6	—	2	—
	극 예	—	—	2	2	—	2	—
	연 대 위 법	—	—	2	2	—	2	—
	택(피, 올, 성, 타) 택(연, 관, 타, 목, 금)	—	—	3	4	—	—	—
교과 선택	교 양 선 택	9	9	9	9	9	9	—
	공 통	84	84	84	40	40	40	—
	필 수	27.0	30.0	30.0	58	58	58	—
	선 택	21.0	21.0	21.0	23	23	23	—
	실 기	18	18	18	—	—	—	—
학 점 계		159	162	162	130	130	130	—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으로 더욱 연구 검토하여 藝術教育의 實質的 特性에 맞는 教育課程으로 보아야 될 사항으로 料料된다. 또한 美國의 大學은 學期單位 登錄制와 科目單位 登錄制를並行하여 실시함으로써 한 과목의 학점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2학점에 대한 소정의 등록금만 내면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大學의 경우 한 과목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라도 全科目

에 해당하는, 즉 한 학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해야 수강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 學生의 과중한 부담과 한 과목 이수에 全科目 수강료 및 학생 회비 등 기타 登錄金 全額을 내야 하는 모순이 성립되고 있다. 이는 하루 속히 시정되어야 마땅하며 美國의 大學처럼 學期單位와 科目單位를 같이 실시하는 合理的인 制度의 創出이 시급히 요망된다.

〈표 8〉 韓·美 유명 音大의 졸업 학점 비교표

구 분	교양(공통)	총 학점 이수 분류		
		전공필수선택	전공선택	학점계
韓 國 音 大	慶熙 大	39	85	16 140
	서울 大	42	82	16 140
	波明 女大	42	82	16 140
	延世 大	41	91	8 140
	漢陽 大	40	76	24 140
	평균	40.8	83.2	16 140
美 國 音 大	University of Michigan	30	66	24 120
	Cleveland Institute of Music	30	58~68	40 128~138
	Estman School of Music	18	54~58	48 120~124
	University of Rochester	18	54~58	48 120~124
	Julliard School of Music	21	84~106	40 145~167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24.6~26.2	62.4~74	37.6~40.4 129~136.2

5. 結論 및 提言

本稿는 우리나라 9개 音樂大學과 12개 音樂科 및 音樂教育科를 대상으로 分析하여 연구 검토하였으며, 外國 大學과의 比較研究를 위하여 美國의 9개 有名 音樂大學을 選定하여 重點研究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되었다.

첫째, 英才教育을 위하여 早期 音樂教育機關이 國·公立으로 設立되어야 한다. 서울의 2개 藝術中學校로는 需要를 충당하기 어렵고 地方都市에도 음악 아카데미를 설립하여 才能 있는 音樂徒를 길러내야 한다.

둘째, 音樂科의 교육과정과 音樂education科의 교육과정을 재검토하여 音樂科는 專攻實技 과목 및 專攻 과목 그리고 專攻選擇의 학점 배정 비율을 높여 演奏家 내지 藝術家로서 專門的 資質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音樂education科는 教育者養成이 목적인 바, 폭 넓은 음악적 知識과 다양한 實技 能力を 갖도록 音樂理論 전반과 광범위한 實技 education이 필요하다. 또한 民族音樂의 繼承 發展이란 면에서 國樂에 대한 비중을 높여 一線教師들이 國樂指導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實技·理論의 비중을 週期的으로 늘려야 한다.

세째, 實技 專門指導 音樂院의 설립을 歐美의

豫備 音樂學校 형태처럼 설립하여 專門的 音樂家의 양성을 시급히 꾀하여야 한다.

네째, 外國의 音樂教育機關의 教育制度를 살펴 보면 각급 학교의 특성 및 교육 목표에 따라 自律의 으로 融通性 있게 운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각 大學은 거의 類似하게 운영되고 있어 學校別 特性이 없고 制一의 教育을 실시하고 있다.

다섯째, 우리나라 大學도 전문적인 音樂家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教養科目의 이수 학점 단위를 낮추고 專攻實技 및 專攻必須, 專攻 과목의 학점 단위를 대폭 높여야 한다.

여섯째, 우리 大學도 21세기의 高度 產業社會와 尖端科學 시대에 副應하는 학과의 중설이 요청된다. 音樂工學, 電子音樂 제작을 위한 音響學, 音合成學 등 特殊分野의 개설이 요청된다.

일곱째, 각 大學의 教科目 名稱이 각기 다른 점은 과목의 特殊性을 고려하여 統一된 명칭으로 정리함이 필요하다.

여덟째, 우리의 大學도 현행 모든 大學에서 실시하고 있는 學期單位 登錄制(등록금 전액 납부)의 모순을 보충하기 위하여 科目單位 登錄制(본인이 신청한 과목만 수강료 납부)를 조속히 병행 실시하여 학생의 과중한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